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 본격화

〈詩 畵〉

문화동 일대 2010년까지 62억 투입
야생초 화원·자생 식물원 등 들어서

광주시 북구 문화동 일대가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주고 삶의 여백을 주는 '시화(詩畵) 문화마을'로 조성된다.

이 일대에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2억이 투입돼 문화광장, 시화문화의집, 야생초화원, 자생식물원 등이 조성되는 등 광주시의 대표적인 문화 쉼터로 변모한다.

북구 문화동 각화 글로벌 아파트 일대가 대단위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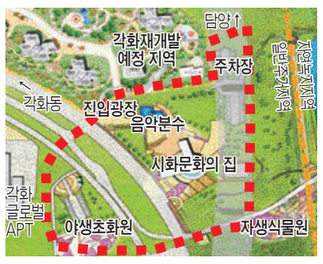
주민들이 뜻을 같이한 '시와 그림이 있는 문화마을 사업'이 '작은 시작'이었다. 삭막한 도심을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작은 운동의 결실은 의외로 컸다. 광주시, 북구청 등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북구 문화동 일대 담장과 방음벽을 예술 작품으로 바꾼 것이다.

화가들의 벽화는 물론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빚어낸 그림, 유명 작가들의 조각작품, 문인들의 시 등이 즐비하다.

주민들의 '작은 운동'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2007년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1위를 차지하는 커다란 성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도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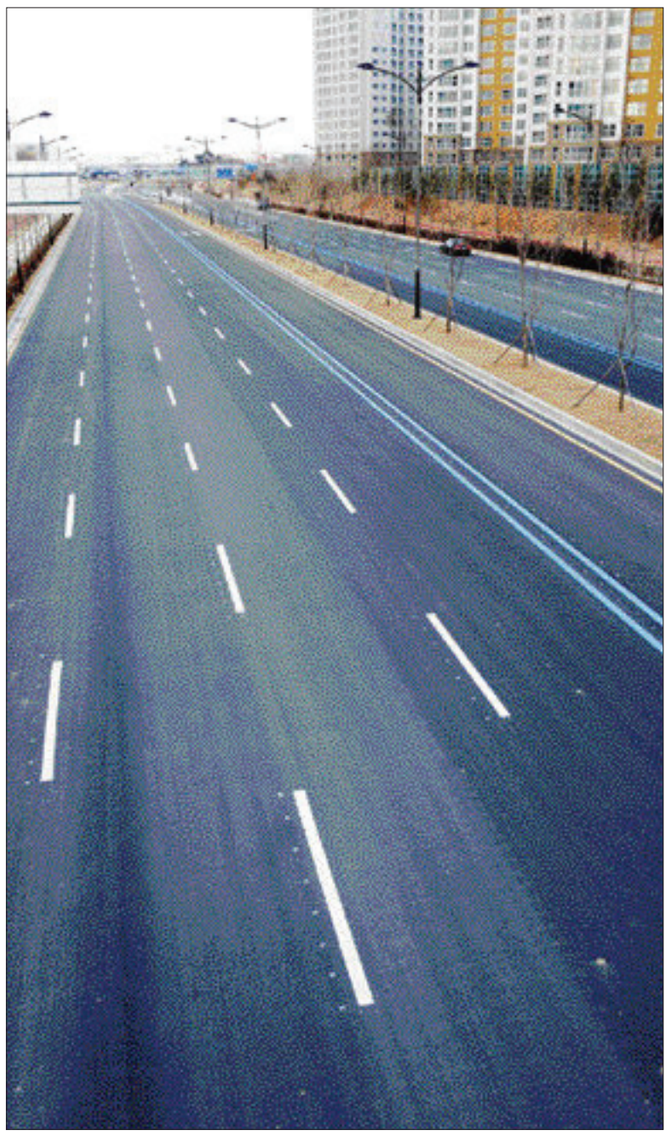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이 일대를 '시화(詩畵) 문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해 제2순환도로 문화대교 교각 주변 공공부지를 포함한 1만6천854㎡에 문화광장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예, 생활문화,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 시화문화마을 예정지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영향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토지보상을 거쳐 공사에 착수, 2010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문화공간이 조성돼 시민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마을가꾸기 선진모델을 제시하는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27일 개통되는 광주시 수완 택지지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임방울 대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 수완지구에는 임방울 대로를 비롯, 수등로, 풍영로, 왕버들로 등 4개 도로가 일제히 개통돼 이 일대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완지구 간선 도로 4개 노선 개통

광주의 대표적인 신도심인 수완택지지구의 주요 간선도로 4개 노선이 27일 개통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간선 도로는 하남로 광장~수완동(2.7㎞·임방울로) ▲장덕동~제2순환도로(2.2㎞·왕버들로) ▲흑석동 하남로~장덕동(2.5㎞·풍영로) ▲신가지구 ~첨단 방면 (0.2㎞·수등로) 등이다.

시는 지난 8월초 하남산단~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총 7.4㎞의 4개 간선도로를 개통했다.

시 관계자는 "4개 노선이 추가 개시돼 수완지구 주변도로의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분산되고, 하남산단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단축, 공동주택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 수완택지지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업무·장학 사업 단일화 효율성 제고

광주교육청 내년도 교육활동 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구 화정동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초·중·고 교장과 고등학교 연구부장 등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광주교육활동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별도로 추진됐던 주요업무계획과 장학계획을 내년부터는 단일화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교육청의 대표 브랜드인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5개년 프로젝트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25억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 신설, 화장실·냉난방 시설·노후 책걸상·급수전기 시설 교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설학교 미완성 강당 증축공사, 광주교육연수원 이설 사업, 교육시설복합화단지 조성,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교재와 교구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전 학교로 다문화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이번에 발표된 교육계획을 토대로 내년도 학교 경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정상필기자 camus@

광주시 청년 인턴제

행정 분야 등 56명 선발

광주시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미취업자 56명을 선발해 공공기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인턴제를 시행한다.

모집 부문은 일반행정(37명), 외국어·국제(2명), 홍보(2명), 사회복지(4명), 건축·토목(5명), 전산(3명), 통신·전파(1명), 보건·식품(1명), 환경(1명) 등 56명이다.

지원희망자는 2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메일(bluechip22@korea.kr)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채용 후 10개월 이내로 월 100만원의 급료가 제공된다. 문의 062-613-3810. /윤영기기자 penfoot@

개관 4년 DJ센터 국내 대표 전시관 발돋움

올 가동률 70% 달성
경제효과 3,600억원

개관 4년째를 맞은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국내 대표적인 지방 전시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대중센터는 글로벌 경제난 속에도 굵직한 국내외 주요 행사를 치러내 전시장 가동률을 70% 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3천600억여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대중센터에 따르면 2008년 한해 61건의 전시회와 666건의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전시장 가동률이 69%에 달했으며 관람객도 200만명을 넘어섰다.

김대중센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2006년 2천500억여원에서 올해 3천600억여원에 달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지난 4월 대전컨벤션센터와 10월 인천 송도컨벤시아가 잇따라 개관하는 등 전국 12개 전시컨벤션센터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성과가 주목된다.

전시 부문에서 개관 첫해인 2005년에 14건의 전시와 143건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시 56건, 회의 526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충장축제, 한국 대표 축제 반열에

정부 문화관광축제 선정…예산·해외 홍보 등 지원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정부가 인정하는 '2009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축제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광주시 동구청은 '충장축제'가 도시의 문화, 역사, 추억을 소재로 한 길거리축제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장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제 지원금과 축제 해외홍보, 축제 컨설턴트(consultant)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충장축제는 도심 길거리축제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431억원의 경제생산유발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축제에 신규로 선정됐다.

동구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영광을 자축함과 동시에 한국 대표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

동구는 앞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춘 도심 거리축제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축제 전문가 컨설턴트, 행·재정적지원 확대,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 길거리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충장축제의 2009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도심 길거리축제의 새로운 상품화 가능성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체험행사 확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전국 최고의 명품 축제로 성장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

광엑스포 학술 컨퍼런스 업무 협약

광주세계광엑스포 재단, 5개 개최 기관과

광주세계광엑스포 재단이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에서 광(光) 관련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할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세계광엑스포 재단은 "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와 LED반도체조명학회, 한국광학회, 한국레이저가공학회, 한국로봇학회 등 5개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세계 광엑스포 주요 행사의 하나인 학술 컨퍼런스 부문의 진행을 맡게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광통신부품기술워크숍과 한국로봇학회 국제학술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광관련 전문가와 석학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대회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L.홀 박사를 초청, 특별 심포지움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세계광엑스포' 전시·컨퍼런스에서는 국제광산업전시회, '반도체조명전(SSL Fair)', 대한민국학생과학발명대전, 2009 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 등 4개 산업전시회가 열리고, 12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